

이원욱·조응천 합류 거부... 이낙연 신당의 '어두운 미래'

'새로운미래' 민주당 탈당과 중 김중민만 참여 '반쪽 창당' 이준석 대표와도 '빠격'... 개혁신당과 빅텐트 무산 가능성

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이 민주당 탈당과 3인 주축의 '미래대연합'과 창당 과정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4일 비명(비이재명)계 탈당파 의원 3인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의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의 공동 창당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정당이 합친 '새로운미래'와의 공동 창당에는 미래대연합 현역 의원 가운데 김중민 의원 한 사람만 참여했다. 또한 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의 빅텐트 추진 방안 및 당명 등을 놓고 전날까

지 내부 이견이 표출되며 합의 무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원욱 의원과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 큰 통합을 위해 오늘 저희는 합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상상력의 정치를 시작하지는 결의였다"면서 "새로운미래에 참여하는 것은 영혼 없이 몸만 얻어 주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을 위해 신명나게 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상상력의 정치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저희

들의 결심을 훼손시키는 일이었다"며 "분열과 갈등이 없는 나라, 양극화로 절망을 겪지 않는 나라, 아이들과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가치와 비전 중심의 정치, 양심의 정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의 원칙은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이다. '새로운미래'와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 "합수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다"면서 "정당의 헌법인 강령과 당헌이 반드시 합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일방적 의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가치와 비전 중심의 통합을 주장해온 저희가 몸자 통합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면서 "오허려 오늘 저희 선택이 올바른 정치를 위해 민주당을 떠난 청년들이 앞으로 더 크게 역할할 수 있는 대통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치는 영혼과 이상의 조율이 이룬 소명으로 해야 한다. 공간만 이동하는 통합은 불협화음만 낳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은 여전히 절망과 분열의 나라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치권은 지금도 극단적 혐오주의에 빠져 '말로만 민생'을 말하고 있다"면서 "대통합의 정신과 실천만이 '공화시민과 청년들이 당당히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저희는 그들이 제3세대 정당의 주체로서 우뚝 서는 정당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 국회의 의원회에서 중앙당 공동 창당대회를 했다. 당 대표는 새로운미래 인제위원장인 이 전 대표와 미래대연합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인 김중민 의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지도체계는 당 대표와 책임위

원으로 구성되며, 책임위원 등 나머지 지도부 선출은 당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새로운미래의 당헌에는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레드팀' 당무 검증위원회 설치 ▲공직 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공천 배제 요건 등을 담았다. 정강·정책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시에 둔 포용적·중도 개혁주의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한 민주 정치 구현을 통한 미래 비전 등의 6개 원칙을 확정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까지 경북, 부산, 광주, 전북, 경기, 충북, 강원, 인천, 서울 등 총 9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했고, 중앙당 창당 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대표, 오늘 광주에서 '호남 메시지' 낼까

민주당 지도부 현장 최고위원회의·민생 탐방 '텃밭 민심 다지기' 총선 공천·선거제 언급 가능성... 영입 인재들 참여 콘서트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민생 탐방을 진행하는 등 '텃밭 민심 다지기'에 나선다. 이날 현장 최고위에서는 이 대표가 총선 공천 과정과 호남에 대한 주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한, '민주당 탈당파' 등 제3세대 세력에 대한 언급 여부도 관심사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이병훈 광주시장 위원장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은 5일 오전 10시15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앞서 이들은 같은날 오전 9시10분에 광주시 북구 양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총선을 6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광주 방문은 호남지역 공천 과정에 대한 설명과 최근 잇따른 민주당 탈당과 관련한 '당내 통합' 강조 등의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 지도부가 이 대표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선거제 결정 여부에 대한 언급도 주목된다. 선거제 개정을 좌우하는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 당론 결정 권한을 위임한 만큼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선거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오전 11시30분 양동시장을 찾아 양동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하고 양동시장 일대에서 민생 탐방을 할 예정

이다. 민주당이 광주시 대표 시장인 양동시장을 방문하면서 호남 민심을 듣고 호남에 대한 메시지나 정책 등을 제시하는 장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오후 7시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사람과 미래' 영입 인재 전국 순회 콘서트를 연다. 콘서트에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강정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박지혜 변호사,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 등이 참석한다. 박 전 비서관과 강 전 상근부회장의 강연 이후 영입 인재들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한편 광주지역 총선 출마자 대다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대표 광주 방문 일정을 공유하며 '이 대표 일정을 함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과열 '줄서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리는 선거운동 대신 당 지도부에 '줄서기'로 얼굴 도장 찍기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지지자에게 손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이재명 “明文정당 단결해 총선 승리”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명문(明文) 정당'을 강조하며 4·10 총선 승리를 위한 단결을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이 대표에게 "선거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박성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총선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전했다. 최고위원들과 함께 한 오찬에서는 '명문 정당'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표와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에 즈음해서 친문(친문재인)과 친명(친이재명)을 나누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다"며 "우리는 하나고 단결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태리인더스트리(주)

- 1997 태리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기업부담금 감면(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정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